



“성령의 역사”

롬 8 : 1 - 39

2010. 3. 3 (수), 6 (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서론

오늘날 기독교의 사명은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성령을 지나치게 은사 중심으로 이해함으로 교회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음.)

1.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 1) 하나님의 창조
- 2) 죄로 인한 파괴
- 3)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사역
- 4)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정복됨
- 5) 성령의 새 창조 역사 : 회복의 역사, 교회 중심의 역사
- 6) 마지막 완성과 성취



2. 성령 역사의 목표

- 1) 만물의 회복, 모든 권세의 회복(골 1: 13-23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심.
- 2)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회복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기관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짐.
- 3)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 사건: 인간의 변화
베드로, 바울..

3. 인간의 4차원

- 1) 자아
- 2) 환경
- 3) 공허(void):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의미, 외로움...
- 4) 거룩(holy)

4. 로마서에 나타는 성령의 역사

1) 로마서의 주제 (롬 1 : 16, 17)

2) 죄론 (롬 1 : 18 - 3 : 18)

이방인의 죄 (롬 1 : 18 - 1 : 32)

유대인의 죄 (롬 2 : 1 - 3 : 8)

결론 (롬 3 : 9 - 18)

3) 죄인 됨의 이유 : "알면서 행치 않음"

이방인의 경우 (롬 1 : 19 - 23)

유대인의 경우 (롬 2 : 17 - 29)

4)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 : 24)

5) 바울의 고백 이유 (롬 7 : 19)

6) 문제의 근본 (롬 7 : 21)

7) 바울의 새 생명 : 성령의 역사 (롬 8 : 1 - 39)

생명의 성령(2절), 영(4, 5절), 하나님의 영(9, 13, 14절),
그리스도의 영(9절), 양자의 영(15절), 성령(16, 26, 27절)

8)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 (비교,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 ① 죄에서 해방하심 (8장 2절)
- ②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심 (4절)
- ③ 영의 일을 생각게 하심 (5절)
- ④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함 (9절)
- ⑤ 죽을 몸도 살리심 (11절)
- ⑥ 몸의 행실을 죽이심 (13절)
- ⑦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함 (14절)
- ⑧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함 (15절)
- ⑨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함 (16절)
- ⑩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함 (17절)
- ⑪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함 (23절)
- ⑫ 몸의 연약함을 도우심 (26절)
- 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27절)
- 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28절)
- ⑮ 영화롭게 하심 (30절)
- ⑯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심 (37절)
- 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39절)

5. 성령 역사 : 창조의 본래적 질서를 회복함.

Inherent order of creation

1) 이분법적 사고

오늘날 이분법적인 사고는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스럽게 함.
나와 분리된 사고방식(a detached mentality, 예를 들어,
객관적, 중립적...)이 모든 갈등의 원인:
개인주의, 계급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함.
자연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있다고 생각함.
이것이 죄악의 역사.

2) 신학도 이런 이분법적인 흐름을 가짐: 율법주의적인 오순절 주의...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물질과 영, 초월과 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상호 협력함을 알게 됨(mutually corrective) 우리는 근본적
으로 다른 준거 틀을 가지고 만물을 보아야 함.

4) 성령 : 해결의 핵심.

성령은 관계의 질(a quality of relationality)
즉 두 개의 별개의 사물이 다양성을 잃지 않고 함께 엮어져
있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선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며, 인간 안에서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연결함.

5) 성령에 대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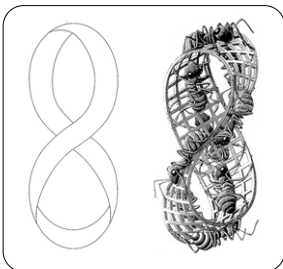
성령을 몸과 분리해서 생각하며 세상과 분리해서 생각함.

6) 뫼비우스 띠 : 성령의 관계성을 보여줌

7) 모든 실체의 근본 : 이 땅의 모든 실체는 관계적 본질을 가짐.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 문화적 영역도 그러함.

8) 인간, 자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서로 대화적으로 하나임.
dialectical unity.

9) 십자가 : 오류를 고치고, 깨어짐을 치유하고, 더 높은 하나님
으로 나아가는 것
고전 1: 22. 유대인은 표적을(구체적), 헬라인은 지혜를
(추상적)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함.



10) 어떻게 이러한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의 지성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는 인간의 영으로 가능.

1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인간에게는 흙(dust)과 하나님의 호흡(breath)이 함께 있음.
이 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dual unity).
인간 본성의 핵심은 관계성이다.

12) 성령의 문법:

Conflict

Interlude for scanning

Imaginative leap

Interpretation

*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The nature of Jesus Christ :

Therefore, following the Holy Fathers, we all with one accord teach men to acknowledge one and the same God, our Lord Jesus Christ, at once complete in Godhead and complete in manhood, truly God and truly man... one and the same Christ, Son, Lord, only-begotten, recognized IN TWO NATURES,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두 본성에 있어서, 혼란도 없으며, 변화도 없으며, 나눔도 없으며, 분리도 없다) the distinction of natures in no way annulled by the union, but rath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ture being preserved and coming together to form one person and subsistence (hypostasis), not as parted or separated into two persons, but one and the same Son and Only-begotten God the Word, Lord Jesus Christ....

13) 계몽주의의 영향

오늘날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데카르트, 뉴턴 등)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분리시킴. (Fragmenting)
그러나 이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그리스도적으로 이해하면 만물이 통합됨.

* 전통적 하나님 이해 :

One essence 3 persons

또는

One Person and 2 natures.